

반려동물 상실 후 은둔생활을 하는  
30대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심리적 구조와 회피적 성향을 중심으로

최지인<sup>†</sup>      한유진<sup>‡</sup>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이 개인의 심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용의 분석심리학적 틀 안에서 탐색하고, 애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심리적 구조와 회피적 성향에 대해 모래놀이치료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대상은 30대 초반의 여성 내담자로 15년간 함께한 반려동물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단절을 보였다. 본 연구는 25회기의 상담 과정을 초기(1-9회기), 중기(10-17회기), 후기(18~25회기)로 구분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상담 초기에는 강한 회피적 성향과 감정 억압이 두드러졌으며, 가족과의 정서적 소통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래상자에서도 피규어를 숨기거나 높은 장애물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의 직면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중기 상담에서는 점진적으로 반려동물의 죽음을 인정하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가족과의 관계와 감정을 재탐색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후기 상담에서는 감정통합 과정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담자는 상실 경험을 자기 이해와 성장의 기회로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반응은 개인의 심리적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애착 유형, 모성·부성 원형, 그림자, 콤플렉스 등의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모래놀이치료가 애도 과정을 촉진하며, 무의식 감정을 탐색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인 상담 방향 및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반려동물 상실, 심리적 구조, 회피적 성향, 모래놀이치료

<sup>†</sup> 주저자 : 최지인,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cji0815@hanmail.net

<sup>‡</sup> 교신저자 : 한유진,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yjhan@mju.ac.kr

## I. 서론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313만 가구이며, 이는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수는 2010년 524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로 증가하였다(국회도서관 법률 정보실, 2024). 반려동물 중 강아지와 고양이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들의 평균 수명은 15~20년으로 인간보다 짧아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사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이현서, 한재희, 2018; 임혜선, 홍혜영, 2022).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며, 인간은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동반자적 애착이나 정서 교감 애착을 형성하기도 한다(최아라, 구혜경, 2020).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종종 가족관계에서 채워지지 못한 정서적 결핍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동물의 죽음은 반려인에게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상실감을 유발한다. 이는 종종 애착 대상의 상실이라는 깊은 정서적 파동으로 작용하기도 한다(Bekoff, 2008). 상실 이후 건강한 애도 작업(Grief Work)과정을 수행하지 못하면 애착불안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C. Colonnese, 2011). 그러나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지지받지 못하거나 사소화되는 경우가 많다(Archer, 1998; Neimeyer, 2001).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애도(mourning)를 하나의 작업(work)으로 보았다. 이는 사랑의 대상이 없는 현실을 기억과 연결하여 확인하고, 대상으로부터의 정서적 에너지를 철회하는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애도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반드시 완수되어야 하며, 이에 실패 할 경우에는 슬픔이 자아를 손상하고 자기를 향한 공격성이 발현되는 멜랑콜리(melancholy)의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Freud, 1917/1957). 반려동물을 상실한 반려인은 인간을 상실한 것과 비슷한 슬픔을 느끼기 때문에(임혜선, 홍혜영, 2022), 애도 작업의 성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애도 반응은 다양하지만, 부정-분노-협상-우울-수용의 5단계의 감정을 겪는다(Kubler-Ross, 2014).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인 부정 속에는 회피가 숨겨져 있다(백세준, 2025).

융의 분석심리학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 무의식 속에서 본능적 자아와 직결된 원형적 상징으로 간주되며, 인간의 감정·직관·생명 에너지와 연결된 원초적 존재로 기능한다(Jung, 1969). 이러한 의미에서 반려동물은 개인의 무의식과 정서를 조율하고 내면 세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상징적 매개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상실은 개인 내면의 심리적 구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심리적 구조(psychological structure)는 개인의 내면 세계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분석심

리학에서는 이를 자아·원형·콤플렉스·그림자·자기 등 무의식적 요소들이 상호작용 하며(Jung, 1969), 개인의 성격과 행동 및 정서 반응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고 보고한다 (Sharp, 1991). 모성 원형(mother Archetype)은 양육·보호·수용을 상징하며, 이는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 이미지로 작용한다(Jung, 1954/1981). 그러나 방임적이거나 냉담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이러한 원형과의 건강한 동일시에 실패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채 정서적 결핍을 외부 대상에 투사하게 된다. 이때 반려동물은 결핍된 모성의 상징으로 작용하여 깊은 정서적 의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무의식 차원에서 모성적 보살핌과 수용에 대한 욕구를 외부 대상에 전가하는 보상적 투사로 해석 할 수 있다. 부성 원형(father Archetype)은 전통적으로 규율·질서·권위·보호를 상징하지만, 보다 확장된 해석에 따르면 개인이 삶을 구조화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외부 세계로 진출 할 수 있도록 돋는 창조적 에너지로도 작용한다(Henderson, 1964; Jung, 1969). 그러나 현실에서의 부성 이미지가 권위적이거나 폭력적으로 경험될 경우, 이는 부정적인 부성 콤플렉스로 내면화되어 감정 억제·자기 겸열·회피적 대인관계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모성 및 부성 콤플렉스는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심상과 정서적 경험의 총체로, 이후 개인의 애착 양식과 정서 반응 양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방임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모성과 위협적이거나 부재한 부성을 내면화한 경우, 타인과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감정 표현을 회피하거나 억제하는 정서 반응이 두드러지게 된다(Jung, 1964/1970; Henderson, 1964). 또한, 용의 개념 중 그림자(shadow)는 반려동물 상실 이후 드러나는 내면 갈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틀을 제공한다. 그림자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부정적 자아의 측면이다. 책임감 부족·무력감·죄책감 같은 감정들이 억압되어 무의식에 존재하다가, 특정 사건을 통해 활성화되곤 한다. 그림자는 감정의 직면을 방해하고 투사나 부정의 형태로 드러나 회피적 성향을 더욱 고착화시킨다.

회피적 성향(avoidant tendency)은 단순히 자아를 보호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아니라, 무의식적 상처와 감정을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작용하며, 정서적 통합과 자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lsched, 1996). 감정의 억압과 왜곡은 애도 반응을 지연시키고, 비합리적 자기비난 및 대인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구조는 정서적으로 밀접한 대상인 반려동물의 상실에서 무의식적 방어를 강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역동은 회피형 애착 성향(avoidant attachment style)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초기의 상실 경험이 반복되는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다(Bowlby, 1980). 따라서, 개인이 내면화한 원형 이미지와 무의식적 정서 및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반려동물 상실 후의 개인의 심리적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모래놀이치료(sandplay therapy)는 이러한 회피적 성향을 완화하고 무의식적 감정을 표현하게 도와주는 심리치료 기법으로, 언어적 접근이 어려운 내담자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Kalff, 2003). 모래상자에서 회피적 성향은 높은 장애물 및 숨겨진 피규어 등을 통해 상징화되며, 내면의 정서를 외부화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가 된다. 내담자는 치료사 와의 안전한 공간에서 감정과 기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점진적으로 감정을 직면하며 자기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회피적 성향의 내담자가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모성 원형·부성 원형·콤플렉스·그림자 등의 심리 구조를 어떻게 직면하고 통합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내담자의 회피적 성향이 모래상자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상실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내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반려동물 상실이 내담자의 심리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회피적 성향이 모래상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의뢰 사유

내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15년을 함께 한 반려동물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은 이후 심한 우울감과 죄책감 및 정서적 무기력 상태가 지속되어 상담을 의뢰하였다.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자책을 반복하며, 감정 표현 및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의 정서적 소통도 단절되어 있으며, 수면 장애와 신체화 증상 및 삶에 대한 무의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주변 지인의 권유로 상담실에 내방하였으나, 상담에 대한 상담 동기 및 확신이 낮고, 상담 지속 의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 2. 발달력

내담자는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질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나이나 특징 및 사망 시기 등의 세부 정보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지인 · 한유진 / 반려동물 상실 후 은둔생활을 하는 30대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심리적 구조와 회피적 성향을 중심으로

내담자는 부모의 정서적 개입이 적은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어머니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성향이었으며, 내담자의 삶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관찰자적인 태도로 양육하였다. 반면 아버지는 주사로 인해 가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종종 어머니와 불화가 생기기도 했다. 내담자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적응 해 왔으며, 감정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학창 시절 내담자는 학업이나 취미활동에 특별한 관심이나 욕구가 없었으며, 부모로부터 별다른 기대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무기력한 삶의 태도를 형성하였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길에 버려진 강아지를 구조하면서 반려동물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내담자는 반려동물을 직접 돌보며 보호자 역할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처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보는 경험을 하였다. 반려동물은 가족 간 유대의 중심이 되었으며, 내담자는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내담자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깊은 죄책감 · 우울감 · 신체적 트라우마 반응을 경험하게 되었다.

### 3. 심리검사 (SCT, HTP, KFD)

내담자는 반려동물 상실 이후 강한 죄책감과 무력감,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며 회피적 성향을 뚜렷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HTP · KFD에서 선이 끊기고 연결되지 않은 형태는 내담자의 심리적 단절감 · 관계 회피 · 감정 억제 등이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양가감정과 대인관계의 거리두기가 관찰되며, 삶에 대한 무의미감과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다. 반려동물이 내담자에게 심리적 안정의 중심이었으나, 상실 이후 자아상이 약화되고 현실 적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과 <표 2>를 통해 SCT · HTP · KFD 검사 내용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SCT 검사 내용

문항	내담자의 표현	해석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그날 강아지를 혼자 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잊고 싶은 건	없는 것 같다. 잊는다는 건 슬픈 것 같다.	반복되는 자기 비난과 후회, '잊는 것 자체에 대한 저항'은 강한 죄책감과 감정 직면
나의 가장 큰 결점은	금방 관둬버리는 것이다. 실천하기를 미루는 것이다.	회피를 반영

<표 1> SCT 검사 내용

(계속)

문항	내담자의 표현	해석
우리 가족은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 안 할지도..	
우리 윗사람들은	윗사람이다.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단절감, 자기애 대한 무관심 혹은 무가치감,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음 등은 자아상 저하와 정서적 고립됨 표현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글쎄다. 모르겠다.	
내가 늙으면	생생하다가 얼른 죽고 싶다.	
나의 장래는	나도 모르겠다. 뭘 해야 하지?	
남자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상한 사람을 알아채기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 및 타인에 대한 불신, 정서적으로 거리 두는 경향 등이 나타남, 이는 회피적 애착의 특성과도 연결 됨
어머니와 나는	유튜브를 하루 종일 달고 산다.	
어머니는 나를	좀 힘들어 했을 것 같아.	
아버지와 나는	어렸을 때는 껌뻑지였지만 어른이 되고 서먹했다. 아쉽다.	

<표 2> HTP, KFD 검사 내용

구분	그림	내담자의 표현
H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어머니/언니/나/강아지)의 집이며, 가족이 살고 있다.</li> <li>- 벽돌로 만들어져 있고, 해가 잘 들어오는 아늑하고 평범한 집이다.</li> <li>- 집 주변에는 나무와 풀이 있고, 지금 날씨는 맑다.</li> <li>- 집은 이 자리에 그냥 있을 것 같다.</li> </ul>
T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늘이 넓은 아주 큰 나무이다.</li> <li>- 30년~50년 정도 자랐고, 건강하다. 앞으로도 건강하면 좋겠다.</li> <li>- 주변에는 들판과 풀이 있고,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 같다.</li> <li>- 나무를 보니 강아지가 생각난다.</li> </ul>

최지인 · 한유진 / 반려동물 상실 후 은둔생활을 하는 30대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심리적 구조와 회피적 성향을 중심으로

<표 2> HTP, KFD 검사 내용

(계속)

구분	그림	내담자의 표현
Person 1 (wo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대 초반의 나이다.</li><li>- 친구에게 “반가워!”라고 인사를 하는 중이고, 밝은 성격이다.</li><li>- 지금 기분은 괜찮은 상태이고, 소원이 딱히 없다.</li><li>- 나중에는 결국 죽을 것 같다.</li></ul>
Person 2 (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삼촌이나 아버지이다.</li><li>- 38살쯤 되었다.</li><li>- 서서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며 ‘잘있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li><li>- 기분은 평범하고, 성격도 무난하다.</li><li>- 소원은 ‘항상 지금 같음 좋겠다.’</li><li>- 이 사람도 결국 죽을 것 같다.</li></ul>
KFD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강아지는 놀고, 어머니는 강아지 간식을 주려하고, 언니는 글 쓰고, 나는 누워 있다.</li><li>- 어머니는 평화주의자, 언니는 깔끔하고, 나는 분란을 만들지 않는다.</li><li>- 어머니는 했던 말 반복하고, 언니는 짜증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li></ul>

#### 4. 사례개념화

본 사례의 내담자는 30대 여성으로, 15년간 함께한 반려동물의 죽음을 겪은 이후 우울감 · 무기력 · 고립감 · 신체화 증상 · 대인 회피 · 외출 기피 등을 경험하고 있다. 내담자는 “강아지를 혼자 두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하며 죄책감과 자기비난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상실과 관련된 기억을 “잊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생각하기가 너무 괴롭다”고 표현하며 정서적 직면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가적 태도는 반려동물의 상실이 단순한 애착 대상의 죽음을 넘어, 무의식 속 심리 구조의 붕괴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담자의 발달사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정서적 민감성과 안정감이 낮은 존재로 내담자에게 감정적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내담자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면화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는 친밀감이 있었으나 성인이 되면서 점점 소원해진 존재로 표현되었다. 이는 내담자의 내면에 부정적인 모성 및 부성 콤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암시하며, 실제 부모와의 감정적 교류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애착의 대상이자 모성의 상징적 대리물로 특사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상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면서, 내담자는 자기 구조의 균형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충격은 우울과 무기력 및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졌다.

상실 이후에도 내담자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가족 및 친구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감정 회피와 정서적 억제를 통해 고통을 견디고 있다. “앞날을 모르겠다”, “생생하다가 얼른 죽고 싶다”는 식의 답변을 통해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방향감각과 자기 효능감을 상실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에서도 “가족은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무가치감과 정서적 고립감을 드러내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자아상의 저하를 반영한다. 이처럼 내담자는 자기 보호를 위해 감정을 억제하고 외부와의 교류를 최소화하면서도, 그 고립 상태에서 오는 무력감과 공허함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복합적 심리 구조를 보여준다.

## 5. 연구 절차

모래놀이치료는 주1회, 50분 상담으로 총 25회 진행되었다. 회기가 진행되기 전에 SCT·HTP·KFD의 심리검사를 진행하였다. 상담실에 입실하면 내담자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눈 뒤 모래상자 작업을 진행하였고, 상자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본 상담은 총 2명의 모래놀이치료 슈퍼바이저에게 3번의 슈퍼비전을 받으며 진행하였고, 해당 내용을 연구 분석에 반영하였다.

## III. 연구 내용

### 1. 회기 내용

#### 1) 초기 상담 (1-9회기)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극심한 죄책감과 무기력감 속에서 상담에 대한 회의감과 혼란을

최지인 · 한유진 / 반려동물 상실 후 은둔생활을 하는 30대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심리적 구조와 회피적 성향을 중심으로

호소하였다. 모래상자에서는 과거 가족여행 장면을 재현하며,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시선을 피하고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상실의 고통은 반려동물에게 의존해 왔던 정서적 지지의 공백을 드러냈으며, 초기에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감정 표현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 ■ 1회기 - 가족여행 (F:테이블, L:흔들 그네)

<일상내용> 상담이 의미 없게 느껴질 만큼 무기력감이 크고, 반려동물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지배적이다. 자신만 살아남은 것 같아 괴로워했다.

<모래상자내용> 가족여행 장면을 구성했으며, 내담자의 피규어를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배치해 직접적 시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언니(B)와의 거리감 · 가족 관계의 특징 ·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 유대가 드러난다.

### ■ 2회기 - 산책 (F:다리, L:잔디)

<일상내용> 내담자는 여전히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날의 고통을 되새기며 괴로워한다. 다른 가족들은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서로 나누고 있으나, 내담자는 여전히 회피적 태도를 보이며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느낀다.

<모래상자내용> 반려동물이 가장 좋아했던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와 벤치, 그리고 함께 했던 공간들을 배치하였다. 어머니는 높은 위치에서 반려동물을 부르고 있고, 반려동물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해 하며 주변을 둘러보며 어머니를 찾고 있다. 내담자는 반려동물을 전담 케어했지만, 그로 인해 반려동물이 자신을 경계하거나 피하려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 ■ 3회기 - 반려동물의 마지막 날 (F:강아지, L:이불)

<일상내용> 내담자는 사건과 감정을 분리하려는 노력을 하며, 인지적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의료진이나 가족에 대한 원망보다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수용 해 보려고 의식적 노력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더 깊이 그리워하는 감정이 올라온다.

<모래상자내용> 반려동물의 마지막 병원 장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리 벽 너머의 반려동물 · 무관심한 수의사 · 멀리서 지켜보는 간호사 · 수동적인 내담자의 모습이 배치되었다. 가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정작 자신은 아무 조치도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강하게 드러난다. 울타리에 물을 뿐 죽음을 상징화하고, 후회와 미안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 ■ 4회기 - 반려동물에게 해주고 싶은 것 (F:강아지, L:나비)

<일상내용> 내담자는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사고 상황을 가족에게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죄책감과 갈등을 느낀다. 슬픔을 나누기보다는 감정을 혼자 감당하고자 했던 방어적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정서적 무게로 돌아오고 있는 상태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자신의 고통 사이에서 갈등하며, 당시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회의가 반복된다.

<모래상자내용> 반려동물이 좋아했던 장난감·음식·창밖 풍경 등 구체적인 기억을 재현하며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어머니는 계속 간식을 주고, 반려동물은 그것을 낯설어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장난감이 흘어진 풍경 속 반려동물은 생기 있게 뛰어다니고 있다. 과거의 익숙했던 불편함(털, 장난감)이 사라진 현재의 공허함이 명확하게 대비된다.

### ■ 5회기 - 반려동물과 나의 공간 (F:침대, L:테이블)

<일상내용> 내담자는 반려동물 사진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며 감정의 호전이 있었으나, 상담 공백 후 다시 불안과 혼란을 경험했다. 가족에게 사건을 말할지 반복적으로 고민하지만, 과거에 내담자가 가족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떠올라 결국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내담자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아픔을 표출함으로써 긴장을 해소하려는 자신의 경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한 자기중심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모래상자내용> 반려동물과의 사적인 공간을 따뜻하고 평평한 바닥에 재현하고 싶어 했다. 반려동물의 신체 상태(디스크)를 고려해 배려하는 모습을 담으려는 의도가 반영되었고, 피아노는 언니(B)와의 연결을 상징하지만, 내담자에게는 좌절의 혼적처럼 느껴졌다. 가족 중 본인만이 성장 과정에서의 특별한 취미활동이 없었다는 결핍감이 드러나며, 내적 자신감의 부족이 투사되었다.

### ■ 6회기 - 휴가 (F:나무, L:사람)

<일상내용> 내담자는 몸살로 상담을 쉬는 동안 상담 종결을 고민하게 되었고, 회피적인 성향이 다시 두드러졌다. 스스로를 ‘회피형 인간’이라 지칭하며,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회피하거나 자극적인 언행으로 상황을 종료시키려는 경향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혼란과 죄책감을 동반한다. 상담 과정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기 탐색에 대한 저항도 발생하고 있다.

<모래상자내용> 내담자는 피규어 선택에서 혼란과 무기력을 경험하며, 초기 의욕과 달리 구체적 장면을 만들기 어렵다고 느꼈다. 대신 평온한 자연 공간(남해, 해변, 풀밭 등)을

상상하며, 반려동물을 함께 머물고 싶은 이상적 장소를 그려냈다. 이는 감정의 회복 욕구와 함께 현실 도피적인 소망도 내포한다. ‘좋은 날씨’에 대한 감각을 부정하며 자신에게 즐거움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나타났다.

### ■ 7회기 - 무제 (F:사람, L:주전자)

<일상내용> 내담자는 반려동물을 꿈에서 자주 마주하며 무의식 속 감정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느낀다. 명절이라는 시기적 요인이 애도의 감정을 재 자극 하였고, 가족과 함께 올며 감정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감정을 억누르려는 경향은 존재하며, 특히 언니(A)의 과한 감정 표현에는 거부감과 짜증을 느낀다. 어머니가 타인을 비난하는 말에도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이러한 가족과의 갈등 지점이 더욱 민감하게 인식된다. 내담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슬픔보다 현실적 문제(금전, 가족 스트레스)에 감정이 옮겨가는 듯한 변화를 느끼고 있다.

<모래상자내용> 내담자는 누워 있는 자신의 상태를 중심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물 위를 등등 떠다니는 장면을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으며, 그 속에서 내담자의 무기력함과 정체된 감정이 드러난다. 반려동물은 주변에서 내담자를 관찰하지만 인지되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에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설정이 포함되었다.

### ■ 8회기 - 생일 (F:케익, L:동물들)

<일상내용> 내담자는 생일을 맞았지만 축하받고 싶지 않은 감정이다, 그럼에도 연락을 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감정이 복잡해졌다. 생일은 반려동물과 함께했던 기억이 많은 날로, 반려동물의 부재를 더 실감하게 되어 가족 모두가 감정이 복받쳐 올게 되었다. 생전에 쳐방식만 먹었던 반려동물을 떠올리며 더 맛있는 간식을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이 깊어졌다.

<모래상자내용> 생일 파티 장면이 모래상자에 재현되었고, 천사 형상의 어머니는 왜소하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신체적 약화뿐 아니라 상실 이후의 정서적 취약함을 상징한다. 반려동물에게는 오랜만에 먹고 싶은 케이크를 주며 생전의 제한된 식사에 대한 보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반려동물의 친구가 되어줄 동물들을 배치하며 소심한 성격의 반려동물도 따뜻한 관계 속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 ■ 9회기 - 무제 (F:악어, L:나무 위의 새)

<일상내용> 내담자는 치과 진료와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인 상황들로 인해 일상이 복잡해졌다고 느끼며, 삶에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 진료 중 마취 상태에서 반려동물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며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태원 참사 1주년 현수막과 반려동물의 죽음을 연결하며, 상황을 회피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반성과 회의감도 나타난다.

<모래상자내용> 이번 장면은 무의식적 선택과 상징이 중심이 되었다. 악어는 위협적 존재로 숨어 있다가 공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관찰하는 새·원숭이·태권도 소녀(어머니)는 상황을 외부에서 관망하는 인물로 표현되었다. 이는 내담자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긴장·위협·감정적 억압을 나타낸다. 쇼파에 앉은 반려동물과 사람은 평온함과 안식을 상징하며, 내담자가 갈망하는 심리적 안전지대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동물적 본능·외부 시선·내면의 평화를 동시에 다루는 상징적 구조를 보였다.

#### 2) 중기 상담 (10-17회기)

내담자는 슬픔과 죄책감을 직면하기 시작하며 감정 표현이 증가했고,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도 생겨났다. 모래상자에서는 반려동물과의 추억·가족 여행 등 과거 기억을 재현하며 정서적 통합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회피적 성향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자기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점차 완화되었다.

### ■ 10회기 - 반려동물의 생일 (F: 평크쇼파, L: 등근통 3개)

<일상내용> 내담자는 반려동물의 생일이 다가오자 그리움이 더 짙어졌다. 캐롤을 듣다 감정이 북받쳐 울기도 했다. 하지만 언니(A)가 분위기를 바꿔줘서 고마움을 느끼는 등, 가족과의 감정 교류가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내담자는 활동량이 많아지며 사회적 관계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 회복이 곧 반려동물을 잊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불안과 슬픔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다.

<모래상자내용> 반려동물의 생일을 기념하는 파티 장면이다. 반려동물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간식을 찾아 다니고 있고, 주변에는 실제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단풍나무와 반려동물의 소품들이 배치되어 있다. 매실액 통 등 현실의 구체적인 기억 요소들이 상자에 함께 배치되어 있다.

### ■ 11회기 - 영화 (F: 진의자, L: 나뭇잎 모양 나무)

<일상내용> 내담자는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며, 외출 전 반려동물의 방석에 이불을 덮어주는 행동으로 여전히 심리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등의 일상적 즐거움을 되찾아가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이를 합리화하며 살아가려는 자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평범한 삶을 즐기려는 자신에게 ‘그래도 되나?’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느끼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음이 드러난다.

<모래상자내용> ‘우리 집 주방’이 재현되며, 반려동물은 어머니의 바짓자락을 물며 애교를 부린다. 이는 반려동물이 살아있을 때의 일상이다. 한편, 눈사람과 눈사람 친구들, 그리고 ‘귀엽고 예쁜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또 다른 공간이 상자에 표현되었고, 이는 내담자가 현재 감정의 무게로부터 심리적 휴식을 원하는 욕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사기’ 속에서 과거의 우리 집이 상영되는 설정은, 내담자가 자신의 과거를 외부에서 객관화하여 바라보고 싶은 무의식적 시도를 보여준다.

### ■ 12회기 - 우리집 (F:싱크대, L:당근)

<일상내용> 내담자는 상담 일정에 대한 긴장으로 멀미와 구토 증상을 보였고, 반려동물의 부재를 부쩍 체감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의 감정적 거리를 인식하고 있다. 언니(A)에게 반려동물의 마지막 날에 느꼈던 미안함을 전하면서 정서적 부담이 다소 해소되었다.

<모래상자내용> 내담자의 현재 집 전체가 재현되었으며, 시간은 새벽 3~4시라는 특정 트라우마 시간대다. 가족들은 자고 있고, 내담자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쓸쓸함을 느낀다. 반려동물과 함께였던 과거의 생활(문 열고 자던 습관 등)과 현재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서, 내담자는 ‘익숙한 정적 속의 상실’을 다시 체험한다. 반려동물을 상징하는 ‘반려 당근’이나 남아있는 ‘반려동물의 영양제’ 등은 반려동물과의 연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무의식적 노력을 보여준다. 내담자는 반려동물의 흔적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과 가족의 반응을 고려한 보류 사이에서 갈등 중이다.

### ■ 13회기 - 꿈 (F:돌담, L:거미)

<일상내용> 크리스마스 즈음은 반려동물의 생일과 맞물려 있어 가족과 함께 조용히 애도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생일을 챙기긴 했지만, 마치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감정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슬펐다. 작년 이맘때 내렸던 눈을 떠올리며 올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지 않아 아쉬웠다고 표현했다. 가족이 함께 해준 것이 감사했고, 전반적으로 상실의 감정이 이전보다 무뎌진 상태였다.

<모래상자내용> 예전에 꿨던 꿈의 인상 깊은 장면을 재현하고 싶어했다. 청계천 밑의 텅 빈 공간 같은 분위기였고, 사람 하나 없이 조용하고 우중충하지만 편안한 느낌의 회색 세계가 묘사되었다. 감옥, 마른 천, 다리, 벽에 붙은 무해한 거미 등이 배치되었으며, 한 인물이 계속 혼자 공간을 배회하고 있다. 이 공간은 고등학교 시절 자주 찾았던 혼자만의 아지트를 연상시키며, 외로움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 ■ 14회기 - 가족 목장 (F:천사, L:아버지)

<일상내용> 내담자는 머리를 단발로 자르며 외적 변화와 함께 정서적 변화도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떠올리면 주로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감정이 정제되어 ‘해결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한다.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런 행동이 반려동물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어진다. 반면, 남아 있는 가족에게는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특히 언니(A)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모래상자내용> 가족 구성원 전체를 재현한 장면을 구성했다. 목장과 같은 평화롭고 맑은 분위기 속에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자신까지 포함해 전 가족을 배치했다. 각 동물들은 울타리 안에 배치되어 서로를 볼 수 있지만 접촉은 제한되어 있다. 이는 거리감과 보호의 상징으로 보인다. 과일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는 생명력과 자연스러움을 상징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함께 떠올리며 그가 외로웠을 것 같다는 감정이 올라왔다.

### ■ 15회기 - 아버지 (F:자전거, L:열매)

<일상내용> 내담자는 친구들과의 여행을 계획했으나, 외할머니의 별세로 인해 일정이 취소되었다. 과거에도 여행 계획 중 아버지의 사망을 겪은 경험이 있어, 유사한 맥락으로 자신이 반복적인 연결 고리에 있다고 느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지만, 감정이 과도하게 올라와 중단하고 싶은 충동도 느낀다고 표현했다. 일상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감정과 맞닿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태이다.

<모래상자내용> 내담자는 가시 덩쿨 속 정원을 구성하였는데, 그곳은 보호받는 공간으로 귀한 식물과 쥐가 살고 있다. 외부에는 높은 시야를 가진 말과 기린을 배치해, 내부의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설정을 만들었다. 또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장면과 한강 주변의 사람들 모습을 재현했다. 상자에서 피규어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별레, 나무, 열매 등의 진짜 자연을 표현하는 피규어를 넣었다고 말했다.

최지인 · 한유진 / 반려동물 상실 후 은둔생활을 하는 30대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심리적 구조와 회피적 성향을 중심으로

### ■ 16회기 - 해변가 (F:아기, L:쓰레기통)

<일상내용> 내담자는 바빠진 일상 속에서 외모와 건강에 대한 자기관리를 시작하며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머리를 자르고 다이어트를 하며, 충치 치료와 피부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등 자신을 돌보려는 태도가 나타났다.

<모래상자내용> 자신과 반려동물이 함께 있는 ‘둥둥 떠다니는 섬’을 만들고자 했으나, 모래 위의 손자국을 보고 해변가가 생각났다고 했다. 등대 안 사람들과 정박한 배·기차 길·옥상의 인물들·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람 등을 구성했다. 음식물과 함께 있는 휴지통·벤치·여관·카페 등 일상의 다양한 상징물을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기는 자는 곳이 아니다’라며 자신은 다른 곳에서 잘 것이라고 말하며 내면의 거리두기를 하였다.

### ■ 17회기 - 회의 (F:나무, L:난쟁이)

<일상내용> 내담자는 뒤바뀐 생활 패턴을 교정하기 위해 아침 운동을 시작했으나,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언니(A)의 의욕 저하가 반려동물의 상실과 관련이 있을까 하여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 내담자 자신 또한 이유 없이 문득‘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치과 치료를 미루는 회피적 태도와 함께, 어머니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은 애착 대상에 대한 불안을 드러낸다.

<모래상자내용> 모래상자 속 주인공은‘쉬고 싶다’고 느끼며, 멀리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다. 중앙에는 공지 사항을 전하는 통치자가 있고, 주변 사람들은 이를 무의미하게 듣고 있다. 거위도 물을 마신 후 사람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피규어들은 관조적인 느낌이다.

### 3) 후기 상담 (18-25회기)

내담자는 감정을 수용하고 반려동물을 그리워할 수 있는 여유와 안정감을 회복했으며, 일상에 다시 적응해 나갔다. 모래상자에서는 평온한 장면·상상의 공간·상실을 받아들이는 메시지들이 등장하며 심리적 전환이 뚜렷해졌다.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 ■ 18회기 - 외식 (F:집, L:풀)

<일상내용> 내담자는 일상 속 관계 회복과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는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낀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자신만 치유되는 듯한 느낌이며,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미해결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자신에

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적극적이지 못 했던 자신’과 ‘충동적으로 행동 했던 자신’ 중 어떤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했다.

<모래상자내용> 모래상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정겨운 식당이 등장한다. 물레방아·자전거·매주 등으로 가족의 기억과 일상성을 표현하며, 가족과 함께한 과거의 따뜻한 시간을 회상하는 듯하다. 자신은 막내이지만 책임감 있는 존재로 기억되며, 가족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과 동시에 피로감이 공존했음을 느끼고 있었다.

### ■ 19회기 - 동물원 공사 (F:문어, L:풀)

<일상내용> 내담자는 이전보다 감정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흐름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침 시간에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신만 정지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또한, 현실과의 괴리를 인식하며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했다. 최근 새싹 모종을 키우면서 아침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을 상기시킨다.

<모래상자내용> 공사장과 동물원이 함께 구성되었다. 공사장과 동물원의 경계가 있다. 공사장에는 울타리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위험에 대한 주의와 통제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동물원은 사람들과 동물의 공간으로 나뉘며, 언니와 동생은 ‘가족’으로 구분되고 나머지는 타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음식·개미·풀을 추가로 배치하여 질서와 복잡성이 공존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 ■ 20회기 - 휴식 (F:풀, L:커피)

<일상내용> 상담 텁 사이에 맞이한 반려동물의 기일이 내담자에게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일상 중 갑자기 그리움이 몰려왔고 불면 증상이 반복되었다. 최근 친구의 반려동물이 아팠다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반려동물에 대한 억울함과 자책이 다시 떠올랐다. 반려동물의 죽음이 불가피했음을 이해하려 해도, 여전히 ‘왜 우리 반려동물만..’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모래상자내용> 꽃과 풀이 가득한 포근한 공간이 조성되었고, 인물들은 명하니 TV를 보며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반복되고 무감한 일상 속에서도 내담자는 ‘하루 종일 반려동물을 바라보고만 있고 싶다’는 바람이 생각났다. 여전히 상실의 감정이 일상 깊숙이 남아 있음을 드러냈다.

### ■ 21회기 - 반려동물이 살고 있는 동네 (F:감나무, L:문)

<일상내용> 내담자는 최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일상 회복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

고 있다. 운동과 치과 치료를 병행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유명인의 반려동물 상실 경험을 방송으로 접하며 정서적 위안을 받았다. 여전히 반려동물에 대한 미안함과 ‘마지막 날 병원에서의 사고를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한 것’은 마음속 짐으로 남아 있지만, 그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감정을 언젠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여유도 생겼다.

<모래상자내용>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지내는 세계가 그려졌다. 밥을 만드는 곳간과 친구들과 지내는 집이 있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만난 후 내담자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등장했다. ‘문’을 통해 반려동물의 공간과 내담자가 사는 현실 세계와의 경계를 만들었다. 내담자는 피규어를 보며 “반려동물아,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라는 말을 건넸다. 드디어 미안한 감정을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 ■ 22회기 - 비 온 뒤 사막 (F:낙타, L:트럭)

<일상 내용> 여행 후 일상으로 복귀한 내담자는 반려동물의 물건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고, 이는 심리적 정리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한다. 동시에 물건을 치우는 것이 반려동물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져 두려움도 있다. 일상에서의 즐거움과 함께 앞으로의 삶과 진로에 대한 고민도 점점 커지고 있다.

<모래상자내용> 사막을 배경으로 한 상자에서 내담자와 반려동물은 낙타에 기대어 휴식 중이다. 오아시스와 동물들 및 식물들이 존재하는 이 사막은 딥지만 불편하지 않고, 신기하고 편안한 공간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이 드러난다.

### ■ 23회기 - 꿈 속의 내 방 (F:무덤, L:휴지)

<일상 내용>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내담자는 사회적 관계 회복 속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가 아니라 ‘재미있게 보내고 싶다’는 주체적인 시간 인식이 생기고, 주말에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유도 보였다.

<모래상자내용> 꿈 속에서 만난 반려동물과의 장면을 재현하며 내담자는 슬픔이 아니라 평온함을 느꼈고, 반려동물을 만지며 “많이 못 만져줘서 미안해”라는 감정을 직접 표현했다. 일상 공간과 기억, 감정이 어우러진 모래상자 속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예전보다 더 여유 있게 반려동물을 바라볼 수 있었음을 인식한다.

### ■ 24회기 - 여수 (F:집, L:풀)

<일상 내용> 내담자는 외모 변화와 자기 관리에 신경 쓰며 일상의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친구의 강아지가 다시 위기를 넘긴 사건을 접하며, 자신이 반려동물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최근에는 친구의 무심한 말에 상처를 받았는데, 혹시 자신이 친구라는 대상을 질투하는 것은 아닐까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모래상자내용> 가족과 여수에서 보낸 평화로운 여행의 장면이 재현되었다. 야외 바비큐·그네·큰 나무 아래서 언니(A)와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은 내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추억 속의 따뜻함을 떠오르게 했다. 내담자는 언니(A)와 함께 편안히 누워있는 장면을 감상하며 가족과 정서적 연결의 회복을 인식했다.

### ■ 25회기 - 반려동물의 동네 (F:집, L:사과)

<일상 내용> 내담자는 최근 일상에서 정서적 여유가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점차 안정감을 회복 해 가고 있다. 직장 동료들과의 재회에서 미뤘던 만남을 반성하며 타인의 배려를 인식하게 되었고, 반려동물에 대한 감정도 죄책감보다는 ‘그리움’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반려동물의 유품을 스스로 분류하고 일부를 정리한 것은 정서적 애도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모래상자내용> 모래상자에서는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상상의 동네가 구성되었으며, 내담자의 가족들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내담자는 반려동물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려동물아 잘 있어! 나는 어머니랑 언니가 있는 여기에 살아야 해”라고 소리내어 인사하였다. 반려동물의 세상에는 귀한 풀·하얀 동물·꼬마 아이 등 내담자가 반려동물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위로와 메세지를 상징적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내담자가 반려동물의 세계와 본인의 세계에 대한 분리하고 거리감을 둔 배치를 통해 내담자의 일상 변화와 내면의 성장이 드러났다.

## 2. 심리적 구조의 변화

반려동물의 상실은 인간 관계와 유사한 정서적 애착을 포함하며, 상실 경험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개인의 무의식 구조와 깊이 연관된 심리적 충격으로 작용한다(Archer, 1998; Podrazik et al., 2000). 내담자는 15년간 함께 지낸 반려동물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한 이후, 극심한 죄책감·무력감·고립된 삶의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상담 초기에는 자신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며 “내가 그날 병원에서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다”, “나 때문일지도 모른다”

는 식의 표현이 지속되었고, 이는 Jung(1969)이 말한 자아의 중심이 특정 감정에 압도당한 상태, 즉 콤플렉스의 전형적 양상이다. 내담자의 콤플렉스는 단지 반려동물 상실이라는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전 삶의 자기 평가 · 자격감 · 책임감 등이 복합적으로 얹힌 감정 구조로 나타났다.

내담자가 가진 감정적 억압은 주변 인물에 대한 감정 투사로 연결되기도 했다. 특히 언니가 강아지의 사진을 보며 “귀엽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내담자는 불쾌감과 분노를 느꼈으나, “내가 괜히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곧 반성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감정 혼란은 그림자의 개념으로 설명 할 수 있는데, 억제된 무의식의 어두운 면이 타인에게 투사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다(Jung, 1954). 상담 중기에 접어들면서 내담자는 이러한 그림자를 인식하고,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는 시도를 점점 확장하였다. 이는 그림자의 의식화 과정으로 해석되며, 자기 수용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변화이다.

반려동물은 내담자에게 단순한 애착 대상이 아닌 이상적인 모성상의 투사 대상이었다. 현실의 어머니는 다소 방임적이고 내담자와 정서적 거리가 있는 인물로 묘사되었는데, 내담자는 반려동물을 돌보며 무조건적인 애정을 경험하는 동시에 보호자 역할의 수행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였다. 이는 내담자가 모성 원형을 반려동물을 통해 보상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Gilbert, 2005).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형성된 모성상을 내담자 자신의 내면으로 통합하고,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생각의 전환들이 나타났다. 중기 이후에는 모래상자에서 ‘강아지의 음식을 챙겨주는 어머니’, ‘강아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내담자’ 등의 장면을 구성하며 모성의 내면화가 표현되었다.

부성원형의 영향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버지는 내담자의 성장기에 술 문제와 갈등이 있었던 인물로 언급되며, 현실 세계에 대한 불신 및 자기 결정 회피 등의 태도로 이어졌다. 초기에는 ‘사회적 역할 수행’이나 ‘현실적 계획 수립’에 대한 의욕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중기 상담에서는 자전거와 캠핑 등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아버지에 대한 이중적 감정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나타났고, 후기에는 자신의 진로 문제나 일상 복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부성적 기능의 회복과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는 Sharp(1991)이 말하는 부성 원형의 기능, 즉 ‘자율성’, ‘의지’, ‘현실 적응’을 내면화하는 심리적 성숙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반려동물의 상실은 내담자의 심리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모래상자에서 콤플렉스와 그림자의 재활성화 및 모성과 부성 원형 재구조화를 통해 상실의 경험이 자아 성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lt;표 3&gt; 심리적 구조의 변화

구분	단계	초기 (1~9회기)	중기 (10~17회기)	후기 (19~25회기)
모성 원형/ 콤플렉스	현실의 어머니는 방임적 이기에 반려동물을 통해 이상적 모성을 보상하려 는 욕구가 강함.	어머니를 돌보고자 하는 역할 수행이 강화되며, 내담자 스스로가 모성상 을 내면화하기 시작.	내면의 모성 이미지가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변 화. 반려동물을 돌보는 상징이 반복.	
	아버지의 부정적 이미지 로 인해 외부 세계에 대 한 불신 존재. 부성 기 능의 결핍.	아버지의 추억이 소환되 고, 규율·자율성 등 부 성적 속성이 재활성화됨.	삶의 방향, 일상 복귀 등의 이슈에서 부성 원 형이 통합되는 모습. 주 체성 회복.	
심리적 구조	언니에 대한 분노 등의 감정을 직면하지 못하고 투사함.	감정과 감정 표현 사이 의 갈등이 심화되며, 무 의식적으로 투사된 감정	감정 공유와 표현이 가 능해지며, 그림자 요소 를 점차 의식화하고 수 용하려는 태도가 나타남.	
	감정 억압이 두드러짐.	에 대한 인식이 진행됨.		
그림자				

### 3. 모래상자에서의 회피적 상징과 성향

회피적 성향(avoidant tendency)은 상실이나 트라우마와 같은 강력한 정서적 충격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차단하거나 외면함으로써 자아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반응이다(Holmes, 2001). 내담자는 반려동물 상실 후, 상담에 대한 회의감 및 강한 자책감 등의 감정 우회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이는 Dozier et al.(1999)이 제시한 회피형 애착 성향(avoidant attachment style)의 특징과도 부합한다. 내담자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억제하거나 왜곡된 해석을 통해 정서를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모래놀이치료에서는 이러한 회피적 성향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기 회기(1~9회기)에서는 높은 나무·마주 보지 않는 피규어·모래 및 풀 속에 숨겨진 피규어·고립된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모두 앞만 보고 있다”, “눈이 마주치지 않게 놓았다”는 표현은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내면의 방어를 시작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직접 배치하기보다는 가족 중심의 과거 여행 장면이나 간접적인 추억 회상 등을 배치함으로써 상실과 감정의 직면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Kalfff(2003)가 말한 ‘상징적 간접 표현(symbolic displacement)’에 해당하며, 감정을 직접 다루기 어려운 경우 안전한 거리에서 감정을 다루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중기 상담(10~17회기)에서는 회피와 직면 사이의 내적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모래상자에는 감옥 · 지하공간 · 은폐된 통로 · 꿈 장면 · TV · 영사기 등의 상징들이 등장했으며, 이는 내담자의 감정이 점차 무의식의 영역에서 의식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Ammann, 1991). 이러한 상징들은 내담자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상징과 은유를 통해 정서와 접촉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내담자는 “반려동물과 마지막 날을 계속 만들고 싶었다.”, “상자를 계속 만지고 싶었다.”는 발언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마주하고자 하는 욕구를 종종 표현하였다.

후기 상담(18~25회기)에서는 감정 회피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정서적 직면과 통합의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내담자는 “반려동물이 어디에선가 평온하게 있을 것 같다.”, “반려동물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며, 실제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에게 직접 전하는 장면을 모래상자에 구성하였다. 또한 “자주 만져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어머니랑 언니랑 여기서 살아야 해, 잘 지내!”라는 말로 반려동물에게 마음을 전하며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는 Jung(1969)이 언급한 상징을 통한 의식화 과정(symbolic process of becoming conscious)으로 볼 수 있으며, 억압된 감정이 완화되고 통합되는 심리적 치유의 전환점으로 이해된다. 후기 모래상자에서는 반려동물이 쉬는 집 · 오아시스 · 함께 노는 장면 · 반려동물이 사는 마을 · 가족이 함께 있는 정원 등 편안하고 통합적인 공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였고, 이는 감정을 직면한 이후 상실을 의미화하고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무의식적 표현으로 해석된다(Carey, 2006).

결국, 모래놀이치료는 내담자의 회피적 성향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감정의 언어화 이전 단계인 상징화를 통해 억압된 내면 정서를 표현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돋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였다. 특히, 회피적 성향이 강한 내담자에게는 언어 기반 상담보다 비언어적 ·

<표 4> 회피적 상징과 성향의 변화

구분	초기 (1~9회기)	중기 (10~17회기)	후기 (19~25회기)
상징	고립된 피규어, 정면만 보는 배치, 높은 나무 → 감정 차단, 고립, 단절	TV, 영사기, 꿈, 감옥, 멀리서 보는 인물 배치 → 간접화, 정서적 우회	반려동물과 말 걸기, 반려동물의 마을 등 → 수용과 재구성
회피	사진 · 기억 · 상담 회피 등 감정 차단과 억제. 감정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강한 회피.	회피 욕구는 남아 있지만 감정 탐색이 본격화됨. 회피와 직면 사이에서 갈등.	감정을 마주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회복됨. 물건 정리나 말할 결심 등을 통해 책임감이 드러남.
성향			

상징적 접근이 정서적 접근성을 높이고 자기 탐색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러한 점에서 모래놀이치료의 임상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Kalff, 2003; Neimeyer, 2001).

####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이 개인의 심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회피적 성향을 지닌 내담자가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어떤 정서적 변화를 겪는지를 살펴보았다. 상담의 전 과정에 걸쳐 내담자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내면의 정체성과 심리적 구조를 혼드는 충격으로 경험하였다. 이는 중년 여성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여길 만큼 정서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김윤희, 양준석, 2024).

Jung(1969)은 무의식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자기(Self)’의 통합을 위해, 상실의 경험이 자아의 성장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무의식 속 정서적 상처가 외부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경험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Sharp, 1991), 본 사례에서도 그러한 과정이 잘 보여지고 있다.

모성·부성 원형의 측면에서 볼 때, 내담자는 방임적인 모성과 부재한 부성의 영향 아래 자라났고, 반려동물을 통해 이상화된 모성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었다. 모래놀이치료에서는 내면의 원형 이미지를 안전한 공간 안에서 다루게 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돋는다(Kalff, 2003). 실제로 중기 상담부터 내담자는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면서 내면의 모성상에 변화를 경험하였고, 동시에 아버지와 관련된 ‘자전거’라는 상징물을 통해 부성 기능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상담 중반 이후, 내담자는 반복적인 상징 작업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직면하고 그것을 언어화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하였다. 이는 상실된 반려동물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내면화하면, 우울을 완화하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중재가 가능하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부합한다(박소영, 전순영, 2020). 또한, Kalsched(1996)가 말하는 ‘상처 입은 자기(wounded self)’가 방어체계를 약화시키고, 정서가 밖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경우로 볼 수 있다. 특히, 내담자는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돌보는 장면, 함께 있는 공간을 표현하며, 상실된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내면화하였다. Stroebe & Schut(1999)의 이중 과정 모델에 따르면, 애도는 상실지향과 회복지향의 반복을 통해 심리적 균형을 형성해 가는데, 본 사례에서 내담자는 두 과정을 점진적으로 반복하며 애도 반응을 통합 해 나갔다. 또한, 본

최지인 · 한유진 / 반려동물 상실 후 은둔생활을 하는 30대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심리적 구조와 회피적 성향을 중심으로

사례에서 확인된 감정적 직면과 심리 통합의 과정은 반려동물 상실 경험자의 유형별 정서 반응이 다양하게 분화된다는 방법론 기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유영은, 목서윤, 2024).

상담 후기에는 감정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Gilbert(2005)가 말하는 자기 자비(self-compassion)의 태도가 회복되는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회피적 애착 성향을 지닌 개인에게도 감정 표현과 통합적 애도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애도 회피가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애착불안이 이를 매개하는 연구 결과와도 연결된다(백세준, 2025).

모래놀이치료의 역할은 내담자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를 이미지와 공간을 통해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돋는 데 있었다. Ammann(1991)과 Carey(2006)는 비언어적 · 창의적 접근이 외상 경험을 다를 때 효과적임을 강조하였으며, 본 사례 역시 회피적 성향을 가진 내담자가 반복적으로 상징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 감정 인식과 표현 능력을 회복하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또한 애착과 관련된 방어 성향이 반려동물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그 상실이 자아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Dozier et al.(1999)의 연구에 따르면, 회피적 애착을 지닌 성인은 감정적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으며, 본 사례의 초기 반응에서도 유사한 정서 억제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모래상자라는 심리적 투사 공간에서 내담자는 감정을 점차 드러내고 다루기 시작하였고, 이는 자아의 확장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심리 변화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는 반려동물 상실이 단순한 애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원형과 심리적 방어 성향 및 심리적 구조 전반과 연결된 복합적인 경험임을 보여준다. 사례 안에서 모래놀이치료는 언어화되지 않은 감정을 상징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치료적 도구로 역할하였다. 특히, 회피적 성향이 강한 내담자에게 정서적 직면과 자기 통합의 방법으로 모래놀이치료가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내담자와 장기적 치료 과정의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모래놀이치료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심리 구조 기반의 상징화 된 분석심리학적 상담이 많은 내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돋는 유용한 통로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김윤희, 양준석 (2024). 반려동물을 상실한 중년여성 1인 가족의 상실경험에 대한 주 제분  
석. 문화와융합, 46(1), 421-432.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4). 반려동물 관련 통계. 국회도서관.

- 박소명, 전순영 (2020). 애도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반려동물 상실 경험 여성의 우울과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7(5), 971-994.
- 백세준 (2025).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노인의 애도 회피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애착불안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5(3), 560-571.
- 유영은, 목서윤 (2024). 반려인의 반려동물 상실에 관한 주관성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13(5), 157-177.
- 이현서, 한재희 (2018). 중년여성들의 노화반려견 상실경험. *상담학연구*, 19(3), 257-276.
- 임혜선, 홍혜영 (2022). 반려동물을 상실한 성인의 성인애착, 반려동물애착의 군집유형에 따른 애착강도, 애도의 차이. *상담학연구*, 23(5), 203-227.
- 최아라, 구혜경 (2020). 반려동물 양육 소비자의 동물등록제 인식에 관한 연구: 소형견 양육자의 애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392-403.
- Ammann, R (1991).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sandplay: Creative processes become visible*. Open Court Publishing.
- Archer, J (1999). *The nature of grief: The evolution and psychology of reactions to loss*. Routledge.
- Bekoff, M (2008). *The emotional lives of animals: A leading scientist explores animal joy, sorrow, and empathy-and why they matter*. New World Library.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Basic Books.
- Carey, L. J (2006). *Expressive and creative arts methods for trauma survivors*.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Dozier, M, Stovall, K. C & Albus, K. E (1999).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in adulthoo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497-519). Guilford Press.
- Gilbert, P (2005). *Compassion: Conceptualisations, research and use in psychotherapy*. Routledge.
- Henderson, J. L (1964). *Ancient myths and modern man*. In C. G. Jung et al. (Eds.), *Man and his symbols* (pp. 104-157). Doubleday.
- Holmes, J (2001). *The search for the secure base: Attachment theory and psychotherapy*. Brunner-Routledge.
- Jung, C. G (1954/1981). *Aspects of the feminine* (R. F. C. Hull, Tra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 (1964). *Man and his symbols*. Doubleday.
- Jung, C. G (1968).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R. F. C. Hull, Trans.; 2nd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 (1969).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R. F. C. Hull, Trans.; 2nd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최지인 · 한유진 / 반려동물 상실 후 은둔생활을 하는 30대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심리적 구조와 회피적 성향을 중심으로

- Kalff, D. M (2003). *Sandplay: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psyche*. Temeno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Kalsched, D (1996). *The inner world of trauma: Archetypal defenses of the personal spirit*. Routledge.
- Neimeyer, R. A (2001). *Meaning reconstruction and the experience of los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odrazik, D. S & Shackford, S. R & Becker, L. A & Heckert, T. M (2000). The death of a pet: Implications for loss and bereavement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 and Interpersonal Loss*, 5(4), 361-395.
- Sharp, D (1991). *Jung lexicon: A primer of terms & concepts*. Inner City Books.
- Sharp, D (1991). *Jungian psychology unveiled: An overview of key concepts*. Inner City Books.
- Stroebe, M & Schut, H (1999).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Rationale and description. *Death Studies*, 23(3), 197-224.

원고접수일: 2025. 04. 03  
수정접수일: 2025. 05. 09  
게재확정일: 2025. 05. 19

<Abstract>

## Sandplay Therapy for a Woman in Her 30s in Seclusion After Pet Loss: A Jungian Perspective on Psychological Structure and Avoidant Tendency

**Choi, Ji In**                    **Han, You Jin**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psychological impact of pet loss from a Jungian analytical perspective, with a focus on avoidant tendencies and the therapeutic role of sandplay therapy. The client, a woman in her 30s, experienced intense guilt and emotional withdrawal following the sudden death of her dog of 15 years. Her therapeutic journey over 25 sessions was analyzed across three phases: early (emotional repression and dissociation), middle (emergence of mourning and insight into familial and archetypal dynamics), and late (emotional integration and identity reconstruc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pet loss can reactivate unresolved complexes and archetypal wounds, functioning as a psychological crisis that intensifies emotional avoidance and disrupts internal equilibrium. Sandplay therapy provided a safe, nonverbal symbolic space that enabled the client to project and process mourning, facilitating emotional expression and inner integra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clinical value of symbolic expression in mourning work and suggests that sandplay therapy can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clients who struggle with verbal emotional processing and self-awareness.

*Key words : Pet loss, Psychological structure, Avoidant tendency, Sandplay therapy*

최지인 · 한유진 / 반려동물 상실 후 은둔생활을 하는 30대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심리적 구조와 회피적 성향을 중심으로

## 부 록



1회기 - 가족 여행  
(F:테이블,쇼파 / L:흔들그네)



2회기 - 산책  
(F:다리 / L:잔디)



3회기 - 반려동물의 마지막 날  
(F:강아지 / L:이불)



4회기 - 반려동물에게 해주고 싶은 거  
(F:강아지 / L:나비)



5회기 - 반려동물과 나의 공간  
(F:침대 / L:갈색상)



6회기 - 휴가  
(F:나무 / L:사람)



7회기 - 무제  
(F:사람 / L:주전자)



8회기 - 생일  
(F:케익 / L:동물들)



9회기 - 무제  
(F:악어 / L:나무 위 새)



10회기 - 반려동물의 생일  
(F:핑크 쇼파 / L:둥근통 3개)



11회기 - 영화  
(F:긴의자 / L:나뭇잎 모양 나무)



12회기 - 우리 집  
(F:싱크대 / L:당근)

최지인 · 한유진 / 반려동물 상실 후 은둔생활을 하는 30대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심리적 구조와 회피적 성향을 중심으로



13회기 - 꿈  
(F:돌담 / L:거미)



14회기 - 가족 목장  
(F:천사 / L:아버지)



15회기 - 아버지  
(F:자전거 / L:열매)



16회기 - 해변가  
(F:아기 / L: 쓰레기통)



17회기 - 회의  
(F:나무 / L:난쟁이)



18회기 - 외식  
(F:집 / L: 풀)

모래놀이상담연구, 제21권 제1호



19회기 - 동물원 공사  
(F:문어 / L:풀)



20회기 - 휴식  
(F:풀 / L:커피)



21회기 - 반려동물이 살고 있는 동네  
(F:감나무 / L:문)



22회기 - 비 온 뒤 사막  
(F:낙타 / L:트럭)



23회기 - 꿈 속의 내 방  
(F:무덤 / L:휴지)



24회기 - 여수  
(F:집 / L: 풀)

최지인 · 한유진 / 반려동물 상실 후 은둔생활을 하는 30대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심리적 구조와 회피적 성향을 중심으로



25회기 - 반려동물의 동네  
(F:집 / L:사과)